
디지털 시대의 읽기 능력

육현진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 도입

디지털은 이 시대의 중요한 주제어 중 하나이다. 디지털 매체의 대표 주자라 할 수 있는 인터넷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2012년 7월 현재 우리나라 만 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 78.4%였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지난 2000년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가 44.7%였던 것을 감안하면 인터넷 이용률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셈이다. 또 만 6세 이상 인터넷 이용자의 84.8%가 전자 우편을, 그리고 67.1%가 누리소통망(SNS)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만 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패드를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도 63.7%였다.

이처럼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우리 삶의 양상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디지털 매체를 통해 상품을 주문하고 각종 공과금을 납부하며 가상 공간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 일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위의 조사에서도 만 12세 이상 응답자 중 78.8%는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일상생활이 편리해졌다’고 응답하였고, ‘인터넷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45.0%였다.

디지털 기술은 우리 국민들의 읽기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 예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이 실시한 ‘201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의 전자책 독서율은 2010년 11.2%에서 2011년 16.5%로, 학생의 전자책 독서율은 43.5%에서 50.2%로 증가하였다. 또 비독서자까지 포함한 월 평균 전자책 독서량은 성인은 1.4권, 학생은 3.8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조사에서 언급한 전자책은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읽기 행위의 일부에 불과하다. 앞서 소개한 한국인터넷진흥원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자료 및 정보 획득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87.5%), 이처럼 자료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포털 사이트를 검색하고 웹 서핑을 하는 것 역시 읽기 행위의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전자 우편이나 누리소통망을 이용하는 것 역시 광의의 읽기 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하루에 각종 디지털 매체를 통해 수행하는 읽기 활동의 양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매체를 통한 읽기 활동이 늘어나면서 떠오르는 질문 몇 가지가 있다. 인쇄 매체 환경에서 필요한 읽기 능력과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읽기 능력은 같은 것일까? 책이나 신문을 잘 읽는 사람은 인터넷에서도 읽기를 잘할 수 있을까? 만약 매체 간에 서로 다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다면 디지털 매체에서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새로운 능력이 필요할까? 이 글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 활동과 관련하여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한다.

2. 매체의 속성과 읽기의 심리적 과정

인쇄 매체 텍스트를 읽을 때와 디지털 매체 텍스트를 읽을 때 그 심리적 과정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최근 이와 비슷한 연구 문제를 가

지고 대규모 조사 연구를 실시한 바 있는 오이시디(OECD) 피사(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그 답을 한번 찾아보자.

피사는 오이시디 회원국들이 주축이 되어 각 국가에서 의무 교육이 종료되는 시점에 도달한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제 학업 성취도 평가이다. 이 평가의 목적은 공교육의 결과로 학생들이 미래 사회(학업과 시민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읽기, 수학, 과학 영역으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자국의 교육 성과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는 데 있다. 이 평가는 지난 2000년(피사 2000)에 처음 실시된 후 매 3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실시된 피사 2012의 결과는 2013년 하반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글에서 피사 평가를 언급하는 까닭은 피사 2009 주기부터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읽기 평가(Digital Reading Assessment) 때문이다.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에는 디지털 매체를 이용한 읽기 활동이 훨씬 더 확대되고 중요해질 것이며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 간에는 읽기의 심리적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오이시디가 피사에 디지털 읽기 평가를 새롭게 도입하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인쇄 매체 환경에서 읽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디지털 환경에서도 읽기 과제를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이는 또한 학교에서 인쇄 매체에 기반을 둔 읽기 교육 외에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읽기 교육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21. 선형성과 하이퍼링크

디지털 환경에서의 읽기와 인쇄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가 심리적 과정의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는 원인은 각 매체의 속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매체란 정보(이 글에서는 ‘정보’란 용어 대신 ‘의미’ 또는 ‘지식’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였다)를 담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릇은 정보가 조직되고 제시되는 방식(정보의 내용과 형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정보의 조직과 제시 방식이 달라지면 그 정보를 수용하는 방식, 즉 읽기의 심리적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책과 인터넷을 예로 들어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보자. 우선 인쇄 매체인 책의 경우 그 원형은 점토판, 죽간, 파피루스, 양피지 등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세 이후에는 오늘날과 비슷한 형태인 책자본(코덱스)이 보편화되었다. 두루마리 형태이든 책자본 형태이든 이들 매체를 통해 제시되는 정보의 공통된 특성은 선형성을 띤다는 점이다. 즉, 이들 매체에 담긴 정보는 대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제시된다. 그리고 그 순서를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보 생산자(필자)의 몫이다.

반면 인터넷을 통해 제시되는 정보는 선형성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른바 하이퍼링크라 불리는 정보 제시 방식이 그것인데 이 방식의 핵심은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그물망 구조로 배열하는 것이다. 정보가 이런 방식으로 배열되면 독자들은 서로 관련 있는 정보에 보다 즉각적으로, 그리고 보다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로 선택의 자율권을 가지고 각자의 관심, 수준, 목적 등에 따라 자유로운 읽기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자유로운 읽기 방식은 자칫 독자들을 방향감 상실과 인지적 과부하로 이끌 우려도 안고 있다.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방향감 상실이란 읽기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자가 애초의 읽기 목적을 망각하고 뚜렷한 목표 의식 없이 인터넷 공간을 떠도는 현상을 말한다. 전자 우편 수신함을 확인하러 인터넷에 접속했다가 정작 수신함은 확인하지 않은 채 한참 동안 가십거리만 따라다니는 경우가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피사의 디지털 읽기 평가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서 방향감 상실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시디는 디지털 읽기 평가 도구를 제작하면서 학생들이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원인의 하나로 방향감 상실의 문제를 가정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두었다. 즉,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꼭 방문해야 할 웹 페이지와 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는 웹 페이지를 동시에 제작하여 서로 링크로 연결해 둬으로써,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는 웹 페이지로 빠질 수도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문항 설계를 통해 오이시디는 학생들의 웹 페이지 탐색 양상과 디지털 읽기 성적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은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문제 해결과 관련이 없는 웹페이지 방문 빈도가 높을 뿐더러 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는 웹 페이지를 두 차례 이상 방문한 빈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우리나라 학생들의 인터넷 읽기 활동이 덜 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한편 인지적 과부하란 읽기 과정에서 수집된 과도한 양의 정보로 인해 정보를 선별·조직·관리하는 인지적 과정에 과부하가 걸려 결국 읽기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처음과 끝이 가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인쇄 매체 환경과는 달리 하이퍼링크로 끝없이 이어진 인터넷 환경에서는 독자가 스스로 읽기 활동을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에서 멈추어야 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방향감을 상실한다든지 필요 이상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인지적 과부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인들의 인터넷 읽기 상황에서도 흔히 목격할 수 있는 현상 중 하나이다. 따라서 방향감 상실과 인지적 과부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자 스스로 읽기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읽기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과제 해결에 부합하

는 읽기 자료가 인터넷 공간의 어느 곳에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텍스트를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지금까지의 읽기 내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자신의 읽기 목적이 성취되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복합 양식 텍스트 읽기

복합 양식이란 의미를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서로 다른 기호 체계를 복합적으로 활용하는 표현 방식을 가리키며, 이러한 방식으로 제작된 텍스트를 복합 양식 텍스트라고 한다. 엄밀한 의미에서 인류가 지금까지 생산해 온 텍스트의 상당수는 복합 양식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일례로 아이들이 즐겨 읽는 그림책은 그림과 문자라는 두 기호 체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복합 양식 텍스트이다. 심지어 문자로만 가득해 보이는 텍스트 내에서도 특정 부분에 다른 색상을 적용하거나 특정 문자의 활자 크기를 키우는 것은 텍스트 전체의 의미를 보다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그림의 기호 체계 작용 방식을 문자 체계에 적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인쇄 매체와 디지털 매체는 기호 체계들을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인쇄 매체에서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지면에 제시해야 하기 때문에 주된 기호 체계가 문자, 이미지, 사진이며, 그만큼 복합 양식의 양상도 제한적이다. 반면 디지털 매체에서는 인쇄 매체에서 실현 가능한 복합 양식의 양상 외에 동영상, 음성, 음향, 애니메이션 등 추가적인 기호 체계들을 사용하여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복합 양식 텍스트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중에서 어떤 양식의 텍스트를 생산할 것인가 하는 것은 필자의 의도, 동원할 수 있는 기술, 독자의 수준과 관심에 대한 고려 등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라 앞으로 새로운 형태의 복합 양식 텍스트

가 증가할 것임을 감안할 때 복합 양식 텍스트에 대한 이해 능력도 점점 중요해질 것이다. 앞서 소개한 피사의 디지털 읽기 평가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복합 양식 텍스트를 제시하고 학생들이 이러한 텍스트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현재의 학교 교육에서는 이를 거의 다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교육적 고려가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3. 지식 기반 사회와 읽기

디지털 환경에서 읽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조직·관리하며,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읽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앞 절에서 논의한 내용이 주로 디지털 읽기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인지 심리학적 차원의 특성에 관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좀 더 거시적인 사회 경제적 차원의 특성과 관련이 깊다.

3.1. 정보 수집과 관리 능력으로서의 읽기

대량 생산과 표준화가 중요했던 산업화 시대에 읽기의 문제는 주로 주어진 텍스트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로가 공통된 이해에 이르는 것이었다. 하나의 지문을 제시한 뒤에 그 지문을 적절히 이해했는지 선택형으로 묻는 읽기 평가 관행은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읽기 능력이 어떤 것이었는지 단적으로 보여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읽기 영역에서 이러한 형태의 평가가 확산된 시기도 산업화·표준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던 1910년대였다. 이처럼 20세기의 읽기 문제는 대개 주

어진 텍스트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접하게 되는 상당수의 읽기 문제는 읽을 텍스트를 제대로 찾고 이를 관리하는 데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만큼 지식의 원천이 다양하고 지식의 양도 많아졌으며 같은 화제에 대해서도 서로의 입장이나 견해가 대립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 결정을 목적으로 읽기 활동을 하는 이들의 경우에 부정확한 정보나 유효 기간이 지난 정보, 또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친 정보에 편중하다 보면 정확한 판단에 이르기 어려우며, 그런 상황에서 내린 의사 결정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독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원활하게 수집·선별·관리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가 보관되고 소통되는 방식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인쇄 매체 환경에서 생산된 정보는 한곳으로 모아져 위계적으로 조직·관리되었으며, 주로 도서관이나 박물관이 그러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 따라서 누군가가 그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보관된 곳을 직접 찾아가서 (정보가 담긴) 인쇄 매체를 빌리거나 금액을 지불하고 구입해야 했다. 하지만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는 블로그나 트위터, 또는 어느 기관의 누리집처럼 네트워크의 구석구석에 편재(遍在)하고 있다. 따라서 지구 건너편에서 생산된 정보라 하더라도 네트워크만 지원된다면 해당 정보를 내 책상에 앉아서도 즉시 구입할 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읽기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독자의 입장에서 정보의 편재는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드넓은 인터넷의 바다에서 어디에 내가 필요로 하는 정보가 숨어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적절한 방법으로 정보를 찾는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앞서 소개한 인지적 과부하 상태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색 능력과 디지털 기술이 지원하는 도구적 수단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좀 더 살펴보자.

우선 검색의 경우 개념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일상생활에서도 이용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필요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찾아낸 반면 자신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면, 검색이란 것이 단순히 유명 포털 사이트의 초기 화면에서 아무 단어나 하나 입력하는 차원은 아니라는 데에 쉽게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한의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최선의 정보를 검색해 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찾고자 하는 정보가 있을 만한 곳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복합 양식'의 개념에 대해 공부하고자 할 때 상업적인 포털 사이트의 검색 기능은 그렇게 신뢰할 만한 검색 결과를 도출해 내기 어렵다. 정보의 성격이 학술적인 것인 만큼 이 경우에는 학술 자료 검색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웹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복합 양식'이라는 단어 하나로 검색하기보다는 '복합 양식'과 '개념' 또는 '복합 양식'과 '그림책' 등 찾고자 하는 정보에서 핵심이 되는 개념들을 조합하여 검색하면 훨씬 더 근접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밖에 정보 생산자의 사회적 명망이나 신뢰도, 정보의 유효 기간 등도 검색의 과정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디지털 기술이 지원하는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이고 그렇게 남긴 인지적 자원을 보다 고차원적인 정신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주 접속하는 웹 사이트를 즐겨찾기 목록에 등록해 두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디지털 도구 활용 방법이다. 또 인쇄 매체 텍스트에서 색인을 활용하는 것처럼 디지털 텍스트에서는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찾고자 하는 개념이나 인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다.

필자의 경우 아르에스에스(RSS, Rich Site Summary) 기능을 활용

하여 평소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자료들을 손쉽게 수집하고 있다. 인쇄 매체 환경에서 신문 자료를 스크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신문에 서 해당 기사를 오려 내어 따로 보관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스크랩한 양이 불어나면 찾고자 하는 기사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기도 어렵고, 시간이 흐르면 해당 기사를 스크랩한 사실 자체도 잊게 되어 들인 노력만큼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자가 최근 활용하는 방법은 자주 사용하는 전자우편 프로그램의 ‘알리미’ 기능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알리미’ 기능에 평소 학술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관심 있어 하는 주제어 목록을 등재해 두면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국내외 일간지를 검색하여 해당 주제어가 들어 있는 모든 신문 기사들을 필자의 전자 우편 주소로 보내 준다. 이렇게 전달받은 기사들을 수신함 내의 하위 폴더에 나누어 저장해 두면 언제든지 필요할 때 검색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디지털 기술은 다양한 형태로 읽기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대개 그러한 기능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교실의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교실에서 디지털 기술과 관련하여 흔히 하는 고민 중 하나는 지식의 역전 현상, 즉 학생들의 디지털 활용 능력이 교사들을 앞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학생들은 반복된 시행착오를 통해 스스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찾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서로의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그 지식의 양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또한 학생들은 자기 주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인터넷의 지식 공유 사이트를 통해 해결한다. 이른바 집단 지성의 위력을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다.

3.2. 비판적 읽기와 적극적인 읽기 참여

21세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지식 기반 사회라는 점이다. 지난 세기에는 농산품이나 공산품을 대량 생산하여 부를 창출하던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21세기에는 무형의 지식 상품을 통해 부를 창출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제러미 리프킨(Rifkin 2012)이라는 학자는 이러한 변화를 일컬어 3차 산업 혁명의 시대라 규정하고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근면한 사고와 사업 시장, 대규모 노동력을 특징으로 200년에 걸쳐 회자된 영리주의 전설은 종결될 것이다. 동시에 협력적 행동 방식과 소셜 네트워크, 창의적 전문가 및 기술 인력이 특징인 새로운 시대의 개막을 알릴 것이다. 다가오는 반세기에는 1차, 2차 산업 혁명의 전통적인 중앙집권화 경영 활동이 3차 산업 혁명의 분산 사업 관행으로 점차 대체될 것이다. 또한 경제 및 정치 권력에서 볼 수 있는 전통적인 계급 조직이 사라지고 사회 전반에 걸쳐 교점 중심으로 조직되는 수평적 권력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15쪽)

리프킨이 언급한 내용에서 핵심어들을 살펴보면, ‘협력’과 ‘창의’는 지식 생산의 방법과, ‘수평적 권력’은 지식 생산의 결과와 관련이 깊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산업 구조의 변화,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 구조의 변화를 전인하기도 하고 가속화하기도 한다.

위키피디아는 전 세계 누리꾼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인터넷 백과사전으로,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지식이 생산되는 방식을 잘 보여 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들어서는 표제어 수나 정보의 정확성 측면에서 위키피디아가 인쇄 매체 백과사전의 대표적인 브리태니커의 권위를

넘어섰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들린다. 최근에는 학술 목적으로 쓰인 글에서도 위키피디아를 참고 문헌의 출처로 제시하는 사례를 종종 발견할 수 있을 정도이다. 위키피디아가 이러한 권위를 획득한 것은 전 세계 수많은 누리꾼들이 수시로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기존에 등재된 정보를 검증하여 즉각적으로 수정해 나가는 반면, 브리태니커의 경우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아 다시 인쇄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위키피디아의 강점 중 하나이다.

권력 구조의 변화는 이처럼 지식 생산의 주체가 변화하는 것과 관련이 깊다. 지식의 독점이 곧 권력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의 비중립적 속성 때문이다. 즉, 우리에게 전달되는 지식 속에는 그 지식을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이의 의도나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인쇄 매체 환경에서 지식은 주로 대학, 출판사, 신문사 등 소수 집단이 생산하여 대중들에게 독점적으로 그리고 일방향적으로 제공해 왔다. 그러나 위의 위키피디아의 사례에서 보듯이 최근 들어 이들 소수 집단은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다수의 대중과 종종 경쟁 관계에 놓인다. 블로그나 트위터와 같은 1인 디지털 매체가 발달하는 데에서도 전통적 권력 구조의 균열을 쉽게 엿볼 수 있다. 이들 1인 매체의 발달은 한편으로는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 매체를 통한 경제 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독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비판적 읽기 능력이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적 읽기 능력이란 하나의 텍스트가 주어졌을 때 그 내적 논리의 일관성이나 주장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점검하는 읽기 능력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을 말한다. 즉, 텍스트를 생산한 주체가 누구인지, 그 텍스트는 어떠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생산되었는지, 그리고 그 텍스트가 누구의 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인지 비판적인 안목을 가지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읽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독자들의 태도이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읽기는 다른 이들이 생산한 지식을 수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고유한 지식을 생산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들이 읽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한 사회 내에서 특정한 지식이 독점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견제하기가 용이하고 사회 구성원들 간의 상호 교섭 활동도 생산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디지털 매체의 등장으로 인해 각 개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는 확대되었지만, 이는 하나의 필요조건일 뿐이다. 결국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각 독자에게 맡겨진 몫인 셈이다.

4. 맺음말

이 글에서는 디지털 매체가 우리 삶의 곳곳, 특히 읽기 활동의 양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읽기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독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았다. 본론의 전반부에서는 매체의 속성이 변함에 따라 읽기의 심리적 과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밝히고, 후반부에서는 디지털 매체의 발달과 이로 인한 사회 구조의 변화가 읽기 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논의의 초점을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의도적으로 디지털 매체의 특성을 인쇄 매체와 차별화하고 두 매체에서 읽기 활동을 수행할 때 생기는 차이점에 집중한 면이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매체의 차이와는 무관하게 어느 읽기 상황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읽기 능력도 많다는 점이다. 예컨대, 읽고자 하는 텍스트에 대한 배경 지식, 어휘력, 자기 점검 전략(자신의 이해 정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

여 이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 읽기 전략), 읽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태도 등은 매체와 무관하게 성공적인 읽기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다고는 하나 우리 사회에서 주된 의사소통은 여전히 인쇄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디지털 매체의 등장은 불과 몇 십 년에 불과하지만, 인쇄 매체가 이룩해 놓은 문화적 유산은 수천 년에 이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시대의 독자들은 인쇄 매체에서의 읽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서,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의 읽기 활동도 병행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온고지신의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참고 문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2), 《2011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인터넷진흥원(2012), 《2012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 요약 보고서》, 한국인터넷진흥원.
Rifkin, J., 안진환 역(2012), 《3차 산업 혁명》, 민음사.